



일본 가톨릭계병원 견학 및 성지순례

2012년 4월 12일~19일 | 나가사키, 소토메, 고토

본 협회가 주관한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수도·성직자를 대상으로 일본 가톨릭계 병원 견학 및 성지순례가 2012년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7박 8일 동안 9개 기관에서 사제 2명, 수녀 11명, 수사 1명, 협회 2명,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병원 견학은 성프란치스코병원(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성마리아병원(나가사키현 고토시), 성마리아병원(후쿠오카현 구루메시)이었으며 나가사키, 소토메, 고토 지역 성지순례를 겸하고 돌아왔다.

12일
(목)

인천공항 → 후쿠오카공항 → 나카사키

병원견학 1 / 성프란치스코병원 (미사)

[나카사키 시내 순례]
나가이다카시 박사 기념관 → 우라카미천주당 →
원폭중심지, 평화공원



13일
(금)

미사 - 26인 순교자 성당

콜베신부님 기념관 → 오우라천주당

[소토메 성지순례]
기도의비 → 枯松(카루마쯔) 신사 → 순교자무덤 →
쿠로사키성당 → 엔도우슈사쿠문학관 → 오노성당 →
오다이라작업장소 → 세바스찬집터 → 시즈성당 →
도로신부님 기념관 → 도로신부님 무덤



14일
(토)

미사 - 나가마치 성당

[시마바라 반도 순례]
운젠 성당 → 운젠순교도 → 운젠지옥순례지 → 아씨유(족육)
→ 시마바라성당 → 시마바라성 → 시마바라순교지 →
스가와 크리스찬의 묘 → 히노에성지 → 하라성 →
하라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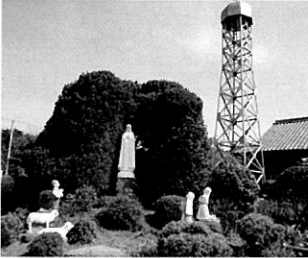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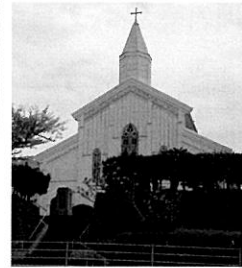
15일
(일)

나가사키항 → 후쿠에항 도착

[후쿠에시마 순례]

쿠스하라감옥 → 쿠스하라성당 →
미즈노우라성당(일요일 미사 봉헌한 곳) →
교가사키공원 → 미이락꾸성당

타카하라해안 → 오오세자키등대 → 우라가시라성당(차창,
노아의방주) → 이모치우라성당(루르드) →
도자키성당 → 오니다케



16일
(월)

미사 - 후쿠에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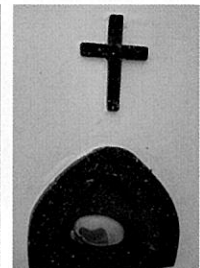
후쿠에항(히자카 웨리) - 사카지마, 타노우라항

[사카지마 순례]

구고린성당, 고린성당 → 하마와키성당 →
로우아노사고 순교기념성당

사카지마 타노우라항 → 후쿠에항

병원건학 2 / (고토) 성마리아병원, 어린이집, 노인홈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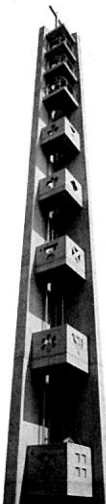


17일
(화)

미사 - 후쿠에 성당

후쿠에항 → 나가사키항 →
후쿠오카시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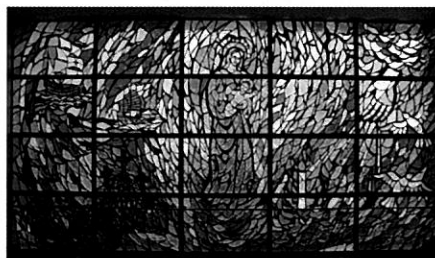
다이묘마치대성당 -
후쿠오카교구 주교좌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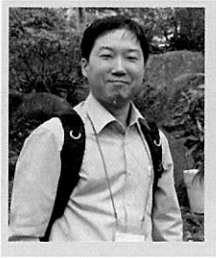
18일
(수)

병원건학 3 / 구루메 성마리아병원

- 병원개요 설명, 강의, 감사말씀(이테요시오 이사장)
- 병원 시설 견학
- 미사(파이프오르간 연주)
- 연수단 환영만찬
- : 사회의료법인 논의성모회 성마리아병원 주최



배기득 우수 가톨릭로 수사 | 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원 원무과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버스를 타고 나가사키로 향했다.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잘 정돈되어 보였고, 휴게소에서 신기하게 타이어를 갈레로 닦는 사람을 보았다. 나가사키로 들어선 버스는 꼬불꼬불한 도로를 달려 나가사키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이나사야마 전망대에 도착, 그 유명한 나가사키 짬뽕을 먹었다. 약간 걸쭉하고 살짝 느끼하긴 했지만 배고픈 상태여서 그런지 맛있게 먹고, 전망대를 둘러 본 후 시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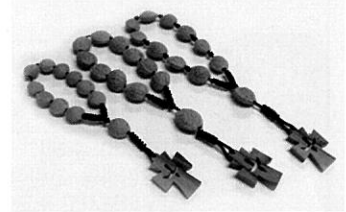


있는 성 프란치스코 의료봉사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성 프란치스코 병원을 방문하였다.

최순례 힐데 수녀 | 성빈센트병원 약제팀



가는 곳마다 예쁘게 우리를 반겨주던 꽃들이 많았지만 유난히 논밭에 자운영이 만발해 있었다. 자운영은 꽃을 피워서는 꿀벌을 기쁘게 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자신을 바쳐 땅을 이롭게 하여 다른 생명을 살린다고 한다.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친 헌신적인 꽃이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자운영이 많은 일본 순교자들을 말해주는 듯하다. 가슴 아린 순



매실 씨로 만든 순례 기념목주

례의 시간이었다. 일본 가톨릭신자들이 이토록 참혹한 박해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죽음으로 지켜온 일본의 신앙 명맥이 불꽃처럼 되살아나 일본인들 가슴을 뜨겁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안혜숙 파비올라 수녀 | 성빈센트병원 구매관리팀



시마바라 격전지와 히노에 성지!

2만 명이 보는 앞에서 화형은 11살 아이에게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어 냈고 마침내 하느님 사랑의 면류관을 쓰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야외 제단에 작은 풀 꽃다발을 봉헌하며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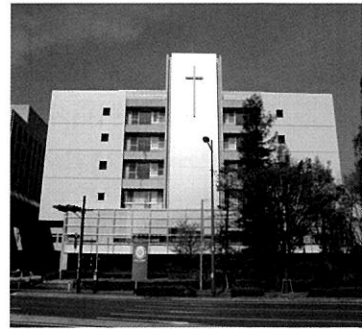
박선과 다니엘 신부 | 서울성모병원 원목팀



세 곳의 병원견학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의료체계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수익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게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은 마음을 상당히 훈훈하게 만들었다. 지역사회 요구에 늘 귀 기울이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 보는 이의 마음을 즐겁고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다.



특별히 구루메 성마리아병원은 한 사람의 열망이 이렇게도 큰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현 이사장의 아버지와 큰형의 염원이 거침없는 강물처럼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당신의 뒷 세대에 서서히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병원 외벽에 내걸린 십자가와 병원 한편의 고풍스러운 성당은 성마리아병원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힘이 어디에서 솟아나고 있는지 말해주는 하나의 징표로 다가왔다.



병원의 정신적 지주로서 튼튼한 심장을 지닌 성마리아병원이 참으로 대견해 보였다.

장수은젬마수녀 | 서울성모병원 원목팀



나가사키 성프란치스코병원 뒤뜰에는 그리 크지 않은 소박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단단한 나무줄기, 반짝이며 빛나는 두툼한 나무 잎새는 오랜 생명을 뿜어내지만, 살아남은 존재의 슬픔도 어려 있다.

원폭으로 1km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은 녹아버리고, 새카만 숲으로 변해 태양도 빛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공포 속에 이 나무만이

신비하게도 살아남았다고 한다.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연을 쏟아 냈을까... 나무 곁에 존재하던 모든 생명체가 깡그리 소멸되는 순간! 이 나무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나무의 그늘 안에 잠시 머물며 나무의 낮은 감

정들을 함께 느껴보았다. 나가사키를 찾는 순례자들에게 과거의 공포와 핵의 위협을 경각하도록 외치는 이 나무가 이제는 평화의 파수꾼이 되고 있었다.



양윤성 다투신부 | 청주성모병원 관리부장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신자 대발견이라 불리는 사건이었다. 250년이나 숨어살다 사제와 재회하면서 던진 질문 세 가지

① “바티칸에서 왔습니까?” 나는 이 질문은 오늘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의 정신으로 살아갑니까? 교회의 모습을 간직하려고 애씁니까? 라고 말이다. 일본에서 보았던 세 개의 병원은 모두 어떻게 하면 교회의 모습을 병원이라는 사명을 통해 구현할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다.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약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들의 모습은 병원 진료 시간표에서 병실의 배치 그리고 가족과의 만남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섬세하게 표현되고 있었다.

② “성모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나에게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 병원 곳곳에 모셔져 있는 성모상에서도 물론이고 각 층에 배



치한 기도방들 안에서, 병원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 운영의 힘을 하느님으로부터 얻으려는 노력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③ “신부님의 가족은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다시 말하면 “당신은 정말 투신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다가왔다. “가톨릭 병원은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 위해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투신하고 있는가?”라는 반성의 소리로 다가왔다. 병원을 위해 일하는 수도자들의 모습과 직원들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얼굴에서 또한 각 병원들의 건립 이념에서 정말로 온젠 지옥불 속으로 그리고 바닷 속으로 자신을 온전히 던지던 일본 순교자들의 투신이 읽혀졌다.

백상선 마리레나 수녀 | 청주성모병원 간호부장



2년을 기다린 일본 성지순례 및 가톨릭 병원 견학이었다. 2011년 3월 11일, 쓰나미 때문에 무기한 연기란 연락을 받고 올해도 갈수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뜻밖의 소식에 많이 설레며 준비한 순례였다.

시마바라 반도 순례(운젠지옥 순례지)길은 해안을 빙 둘러 도로가 나 있었는데 길지만 참 아름다웠다. 한참을



가니 ‘오바마’라는 곳이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 이름과 같아 기억하기가 쉬웠다.

운젠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유황냄새가 진하게 났다. 400년 전의 운젠은 지옥이었다 하니, 일본 기리시탄 탄압사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고문과 처형이 운젠 지옥에서 행해졌다고 한다. 5년간 340명의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 고문을 당한 후 죽었으며 고문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 했다.

이렇게 가혹한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순교자들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산다고 하는 수도자로서 지금의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라보니 부끄러웠다.

박동순 안젤라 수녀 | 의정부성모병원 원목팀



‘환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에 대하여 구루메 눈(雪)의 성모회 성마리아병원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성마리아병원은 ‘가톨릭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또한 환자의 ‘가치관’이나 ‘선택권’을 존중하고 보건의료복지에 있어서 사람들은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병원은 단지 의료 활동 뿐 아니라 하느님의 집, 사랑으로 기도하는 병원이어야 한다”고 표현한 어느 사제의 말처럼 질병이라는 고통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향해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함께 지켜주는 병원으로서 일본 뿐 아니라 한국의 가톨릭 병원들도 다시 한 번 이념실천에 대한 성찰과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도드린다.



장순이 리드비나 수녀 | 의정부성모병원 원목팀



고토의 성당을 순례하다 보니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새롭게 다가온다. 성당 안에 만발한 동백꽃이다. 동백꽃은 천장에 조각돼 있거나, 마리아상과 함께 꾸며져 있거나, 스테인드글라스로 표현돼 있다. 흔히 보던 장미가 아닌, 동백꽃이다. 성모신심이 깊은 일본 신자들은 그동안 장미꽃이 없어 고토에서 가장 흔한 동백꽃을 꺾어 바쳤다는 것이다. 고토 성당에는 목



조, 석조, 콘크리트 등을 막론하고 다양한 동백꽃 모양을 볼 수 있다. 현재까지도 고토 주민들은 순교자들에게 동백꽃을 바치거나, 동백꽃을 '마리아님의 꽃', '순교자들의 꽃' 등으로 부르고 있다.

정순빈 로사 수녀 | 갈바리의원 사별가족 담당



소토메의 순교사와 운젠 성지순교비는 아직도 소름끼치는 모순적 역사의 아픔으로 되살아난다. 따뜻한 가족 사랑을 외면하고, 주님 섬기기를 무엇보다도 바꾸지 않은 강건한 순교 자세는 나의 나약한 현실적 모습을 성찰하게 한다. 또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과 막시밀리안콜베 신부님의 유적은 오직 주님 구원 사명에 몰입한 선교사의 열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듯했다. 엄청난 활동, 용기,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진리를 선포한 선교열정을!!! 주님 나라 증인들이 숨어서 숨어서 죽기까지 지켜낸 용기와 굳건한 믿음의 열정을 본받고 싶다.

허인순 엘리야 수녀 | 모현센터의원 호스피스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을 꺾기 위해 어떤 이들은 에도에서 화형기둥에 묶였고, 어떤 이들은 센다이의 얼음물 속에서 장대에 묶인채 채찍에 맞았고, 또 어떤 이들은 운젠의 뜨거운 온천수 속에서 화상을 입고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의 순간에 그들이 드렸던 기도와 아픔이 전해지면서 목이 메었다. 자신도 모르게 살며시 이기적이 되어가고, 안일하고 나태해지고, 하나둘씩 더 소유(일상물품들)하게 되고, 누가 신앙 때문에 나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떤 때에는 자신이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부끄러웠다. 순교자들 앞에서...

오늘날 순교의 의미는 무엇인가? 과제를 안고 돌아왔다.

최월순 아말리아 수녀 | 대구파티마병원 원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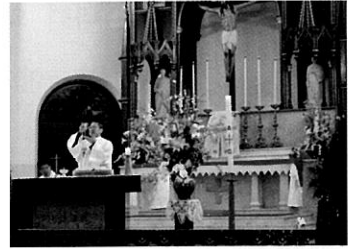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나가이 다카시박사 기념관의 방문, 왼쪽의 피해 중심에서 사랑하는 부인의 죽음, 무엇보다 젊은 일본 지성인이 그 현실에서 느꼈을 참담함, 무력감, 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와 입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은 용서와 사랑과 평화였으니... 나는 그를 우리 시대의 고귀한 성인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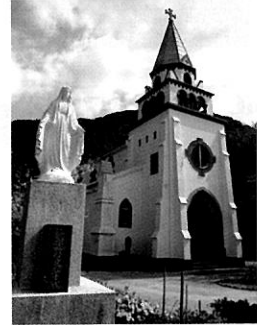
나가마치성당에서 미사참례하면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의 성격



을 명확히 하여 거행함이 인상적이었다. 독서낭독 시 복사가 독서자를 초대하여 제대에서 함께 인사한 뒤 독서대로 안내하는데 끝나면 또 복사는 신부님을 초대하여 복음을 봉독한다. 이렇게 말씀의 전례가 끝나면 독서자는 회중의 자리로 간다. 오르간 반주도 없고 신자수가 적어도 몸에 배인 전례 분위기, 후렴과 응송을 시편 노래로 고요하고 잔잔하게 기도의 분위기로 젖어들게 함도 인상적이었다. 하마와키성당의 신자들은 전수된 신앙이 그리 귀하여 전통대로 내·외적 방식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 앞자리는 어린이석, 왼쪽에는 여신도석. 오른쪽에는 남신도석, 토요일 오후가 되면 철저히 주일을 준비하며 안식일을 지킴에 생업에서 손을 떼고 주님의 날을 맞는다. 오늘날 안식일 의식이 희박해진 우리들로서는 신선한 충격이고 귀감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의 음식문화, 소형승용차, 비교적 좁은 주거공간들에서, 불편함을 참아내는 자세에서 허세부리지 않은 소박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내 마음 한편에는 그 긍정적인 자세가 신앙으로 연결되고 이 넓은 바다와 그 많은 섬들, 열심히 보존하고 가꾸어 우리 작은 독도를 넘보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 지울 수 없었다.



손미희 모니카 수녀 | 창원파티마병원 약제과



성모님의 사랑은 살아 있다. 성모님은 우리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계시기에 가장 힘 있는 전구가 된다는 사실을 일본 신자들을 통하여 또다시 깨닫게 되었다. 오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이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성모님의 은총 덕분이라 생각된다.



강영숙 마리아막다달레나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과장



신을 벗고 성당에 들어가면 남자와 여자가 앉는 좌석이 다르고 성체를 모실 때에도 제대를 중심으로 좌우 제대 앞 장궤틀에 장궤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보여, 어렸을 때 성당에서 영성체 하던 모습이 생각났다. 신앙의 초기나 지금이나 신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순교자의 후손들답게 전통의 모습 그대로를 잘 지키고 있었다. 특히 새벽 6시 미사에서는 주중인데도 어린 복사들이 있었으며, 우리와 다르게 ‘독서’ 후 ‘카미니 간사~(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복사가 혼자 외치는 것이 특이했다. 또한 독서자도 입당을 사제와 같이하며 복사가 그를 안내한다.



외모는 비슷해도 도로와 운전석이 반대이듯 의식은 참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곳곳의 배려와 친절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